

레즈비언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기/토/론/회

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음의 목소리들

- 일시 : 2004년 8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지하 153호
- 주최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레즈비언인권연구소>
공동 주최
- 사업 담당자 :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연구 활동가 최시현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나루, 휘린

- 일시 : 2004년 8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지하 153호
- 주최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레즈비언인권연구소>
공동 주최

레즈비언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기/토/론/회

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음의 목소리들

10대 청소년부터 노후를 바라보는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관통하는
레즈비언들의 경험, 각기 다른 세대에 속한 그녀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녀들의 같음과 다름의 목소리들은 변화해온 한국사회의 모습, 그
안에서 당당하게 맞서 살아 온 레즈비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와 지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부

- 발표1)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1
박김수진 (박통,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연구활동가)
- 발표2) 커뮤니티 참여 경험을 통해 본 세대별 레즈비언의 '차이들' 6
나루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 날다 회원)
- 발표3) 철이의 눈을 통해 본 우리 시대 레즈비언의 모습 14
철이 (여성이반권목모임 조이토마토 운영자)

2부

- 발표1) 19살 레즈비언 리가 꿈꾸는 세상 / 리 22
- 발표2) 20대,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 파스 25
- 발표3) 당당하게 꾸려나가는 30대 비혼 레즈비언의 삶 / 초록 32
- 발표4) 40대 레즈비언, 그녀들의 삶과 사랑 / 레즈비언인권연구소 36

1부 발표1)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박김수전(박봉)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연구활동가

■ 첫 번째 이야기

신촌에 있는 레즈비언 업소 <레스보스>에서 우연히 만난 40대 레즈비언 한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요즘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너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레즈비언들이 너무 쉽게 파트너를 교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저 애랑 사귀었다가, 오늘은 저 애랑 사귀다고, 심지어 원나잇을 하는 레즈비언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마치 레즈비언 커뮤니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매우 조심스럽게) “오히려, 한 명하고 평생 사는 일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 예,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 두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가입을 하기 전까지 저는 세상 천지에 살고 있는 모든 레즈비언은 내가 그랬듯이 ‘죽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만난 몇몇 20대 초반의 레즈비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레즈비언이어서 너무 행복하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레즈비언이어서 행복하다니.....’. 얼마 전에 연구소 프로젝트를 이유로 몇몇의 30대 레즈비언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준 30대 레즈비언들의 인생이란, ‘참혹’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죽겠다고 목을 매고, 제도 결혼에 애인 빼앗기기 반복하고, 꿈도 희망도 없는 세월을 보내온 것이... ‘구질구질함’의 극치였죠. 그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레즈비언이어서 행복하다”는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고 말합니다. 대

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더군요.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모자란 년이지” 모두들 대단히 허탈해 했습니다.

■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끼리끼리> 사무실에 활동가들이 모여서 열심히 ‘아웃팅 방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 한 활동가가 TG-Net에 들어가 이것저것 클릭을 하면서 정보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 활동가 덕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레즈비언이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레즈비언이고, 이런 타입의 레즈비언을 원한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인물 사진 및 동영상 올려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건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4,600명이 넘는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애인을 구하고 있다니요! <끼리끼리> 활동가들은 갑자기 망연자실했죠. ‘이런 상황에 아웃팅 방지는 무슨, 아웃팅 방지!’

■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에 서울 신촌 공원에 수많은 레즈비언들이 모여 있다는,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는 제보(?)를 받은 후, 신촌 공원 주변을 서성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촌 공원에 몰려 앉은 10대 여성들을 둘러싸고 레즈비언이니, 아니니 이런 저런 말들이 참 많았지만. 꼭 한번 가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신촌 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에 처음 도착한 저는 공원 안에서 벌어지는 10대 여성들의 과감한 애정 표현에 깜짝 놀라고, 술에 취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던 모습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공원 주변을 서성이면서 살펴보니 그 와중에 나름대로 질서를 잡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보이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무엇이 그리도 슬픈지 슬피하는 친구를 집단적으로 위로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만약, 다른 행인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확~하니 공원을 지나가기만 했더라면, 혀를 차는 것으로 저의 ‘구경’은 끝을 맺었겠지요.

몇 명의 10대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라고 크게 인쇄되어 있는 명함과 학생증을 동시에 내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10대 여성들 중 다섯 명 정도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우 박동 :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레즈비언인가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네. 모두 레즈비언이에요. 편편하는 애들이 있기도 해요

우 박동 : 여기에서 술 먹고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이젠 큰 싸움만 일어나지 않으면, 신촌 경찰서 경찰들도 아무 말 안해요. 자기들로 지겨운가 봐요.

우 박동 : 뽀뽀도 많이 하네요~용감하다.

우 10대 레즈비언들 : 언니도 해봐요. 별거 아니에요.

우 박동 : 매일 여기에 와서 놀아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랑 집에 묶여 있어야 하니까. 주로 토요일에 나와서 일요일까지 놀다가 들어가요. 매일매일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는 싫어하지만.

우 박동 : 집을 나온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럼, 어디에서 자나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엄마가 토요일에 여기 오는 줄 알고 못 나가게 하면, 애들이 “나, 레즈비언이야! 상관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출을 해요. 재수가 좋아서 아는 언니들 집에서 자는 애들도 있고, 이 곳 공원 화장실이나 현대백화점 화장실에 가서 먹고 자고 사는 애들도 있어요.

우 박동 : 고생이 많겠네요. 제가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단체에서 10대 레즈비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몰라요.

우 박동 : 예를 들면, 공부 모임이라거나, 10대 레즈비언 전용 업소라거나....아참, 청소년이라서 레즈비언 업소에 가는 일도 쉽지가 않잖아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우린, 레즈비언 업소 가는 거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우 박동 : 왜요? 여기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덥고, 추운 게 나아요. 거기에는 기동이 너무 많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우 박동 : 기동어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아까, 언니가 언니 일하는 단체에서 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냐고 물었죠?

우 박동 : 네. 말해주세요. 뭐든, 노력해 볼게요.

우 10대 레즈비언들 : 하늘예요..하늘에다가. 우리가 눈치 안보고 뛰어 놀 수 있는 공

원이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무 간섭도 안받을 수 있고, 기동도 없는 공원을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그녀들과 대화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그러하듯 그렇게 스쳐 지나갔더라면, 저 역시 그녀들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잠시 지나치듯 바라 본 그녀들의 놀이와 서성이는 모습만을 눈에 담아 돌아 왔다면, 저 역시 제보자(?)가 가진 생각과 시선으로 그녀들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레즈비언을 무슨 유행으로 즐기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폄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녀들은 저를 그녀들의 대화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녀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레즈비언들의 공통된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0대 이상 레즈비언들은 성에 관한 매우 보수적임으로 가급적 대화를 피하자' 라든가, '10대 레즈비언들은 레즈비언 정체성을 너무 우습게 여기니 레즈비언이 아니다' 라든가, '레즈비언 정체성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일인데, 행복해하는 이들은 모두 가짜 레즈비언이다' 라든가, '아웃팅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레즈비언을 위해서는 인권운동 할 필요가 없다' 라든가 하는 경박한 교훈을 얻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레즈비언을 세대별로 나누고, 해당 세대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레즈비언의 현실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레즈비언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레즈비언 공동체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작고 큰 갈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혹은 지향할 수 있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대안적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레즈비언 세대간에 있을 수 있는 다름과 같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하여 총 7인의 레즈비언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레즈비언인권연구소>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의 제안을 수락해 주신 발표자 중 네 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커밍아웃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가 경험하는 레즈비언의 현실과 다양한 세대를 관통하는 레즈비언의 경험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이분들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발표자 각각의 경험과 고민을 온

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레즈비언, 우리들의 다름과 같음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나와 다른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레즈비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발표2)

커뮤니티 참여 경험을 통해 본 세대별 레즈비언의 '차이들'

나루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국내 최초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였던 초동회¹⁾가 결성되었던 것이 1993년 12월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동성애자가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커뮤니티²⁾의 수와 종류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90년대 이전에도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의 대외적 명목을 동성애자 모임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것으로 위장하여 두었을 것이며, 그 홍보 역시 지인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것 등을 짐작해볼 때, 지금의 커뮤니티와는 그 모습 및 가지고 있는 함의가 매우 다르다.

한국 사회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급격한 변화는 PC 통신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해왔다. 이러한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역사성과 배경으로 인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원래 따로따로 존재하던 사람들이 153 사서함과 호출기, 휴대폰과 pc 통신,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삼삼오오 모인 것뿐이라고 선불리 평가를 내려버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동성애자 커뮤니티 형성 전까지 우리 사회는 '따로따로'라고는 해도 어쨌든 존재해왔음에 분명한 동성애자 자체를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다.

동성애자 커뮤니티 결성은 그것이 비록 같은 정체성의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라 할지라도, 동성애자 스스로가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함께하는, 커밍아웃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동성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내재된 호모포비아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친목을 목적으로 한 동성애자 커뮤니티라 할지라도, 커뮤니티가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가 인권운동과 분리되어 있는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며 때로는 인권

운동과 현실과의 괴리 등을 날카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와 인권운동과의 밀접한 관련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의지를 가지며, 특히 동성애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들던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동성애자의 존재를 가시화시키므로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인권운동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 말이다.

동성애자 중에서도 레즈비언의 경우, 게이보다 정보접근권이나 사회-경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뒤떨어진다. 따라서 자신을 명명하거나 긍정할 수 있는 언어, 혹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함의와 자신이 받게 될 억압 그리고 그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레즈비언에게 있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받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레즈비언들에게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것, 또 그 커뮤니티를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또한 절실한 일인 것이다.

레즈비언의 커뮤니티 참여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한국 내 레즈비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레즈비언 인권신장 정도를 알아보는 데 적절한 방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세대별 레즈비언 커뮤니티 참여 경험의 차이와 답을 살피면서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

레즈비언 정체성 긍정과 커뮤니티 참여의 상관관계

신문-TV등의 매체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언론의 관점은 AIDS의 주범으로서 동성애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90년대에 10대 후반을 보내며 한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을 30대 초반의 경우 언론의 동성애 혐오적인 시각을 그대로 내재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30대의 경우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레즈비언'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즉 자신의 감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단어조차 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30대 레즈비언의 경우 첫사랑의 시기가 빨랐을지라도 정체화 시기는 훨씬 늦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자기 정체화의 언어 없음과 동성애 혐오 시선의 내재화 등과 연결지어 이해해야 한다. 정체화 시기가 늦으면 커뮤니티 참여시기도 늦을 수밖에 없다. 특히 레즈비언

1) 그 후 초동회는 해체되고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끼리끼리'가 각각 발족한다.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란 레즈비언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여성이 2인 이상 모여 모임을 형성하며, 모임의 구성원들이 성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라는 점에 모임의 주된 성격과 의미를 둘 때 레즈비언 커뮤니티로 이해할 수 있다.

커뮤니티가 PC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도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인터넷에 기반하고 있음을 볼 때, 30대 이상 레즈비언의 경우 커뮤니티 접근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즉 직업과 연령 등이 다양한 10인 이상이 모인 일반적인 형태의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30대 이상 레즈비언의 참여는 높지 않다.

한편 이러한 일반적인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이다. 이들은 30대에 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 결혼에 대한 부담이 적고, 10대에 비해서는 부모님 등 주변인의 감시와 나이로 인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므로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다. 또한 연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갈증이 많다.

특히 현재의 20대 초반의 경우 정체화시기가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일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쉽게 정체화 과정을 거쳐 커뮤니티 입문 시기도 빠른 편이었다. 이에 비해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교제하던 사람이 이성과 결혼하는 등의 사건이나 자신이 결혼 압력을 받는 등의 일을 거치면서 힘들게 정체화 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것 역시 정보 접근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대 초반의 경우 10대 시절이나 20대 초반에 하리수, 홍석천 등 대사회적으로 커밍아웃 하는 이들을 보았고 인터넷을 통해 동성에 관련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대 후반의 경우만 해도 10대를 거치며 1,2번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했지만 동성에 정보를 찾아볼 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접할 수 있는 동성에 정보라고 해봤자 성인 잡지에 실린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것들뿐이어서, 그런 동성애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없었다. 20대 후반의 경우 10대 때부터 동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때로는 교제를 하기도 했더라도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정체성을 긍정하고 비로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30대와 20대가 쉽든 어렵든 정체화의 과정을 거쳐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반면, 10대의 경우 반드시 정체화 후에 커뮤니티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즉 커뮤니티에 먼저 참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10대의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반드시 동성애자라는 이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몇몇 학교에서는 '만화부'라고 하면 당연히 레즈비언 모임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이를 모르고 만화부에 가입했던 사람은 레즈비언 친구들을 접하면서 스스로 '나도 혹시 그런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양상은 인터넷 모임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 10대들은 팬픽 동호회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클럽과 같은 모임의 이름으로 만나, 자신들의 집단을 이반모임으로 명명하고 동성교제를 하기도 한다. 20대, 30대의 눈에는 이들의 정체화 과정이 장난 같고 쉽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10대 레즈비언의 정체화 과정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들에게 내재화된 호모포비아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이들 세대에서 레즈비언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들의 이반 커뮤니티 형성은 취미 생활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친해지듯 성정체성이 같은 아이들끼리 친해지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10대 레즈비언 스스로에게 있어 그러한 모임 만들기에 대한 실전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단, 이러한 이반 커뮤니티가 레즈비언 바나 레즈비언 인권 운동모임 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토대에 있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서보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에서 앞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정체화, 커밍아웃, 연대의 과정들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레즈비언과는 다른 것으로 의미화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를 통해 부담감과 '죄책감'을 던진다. 특히 이들이 인터넷 동호회를 형성하는 주된 곳이 레즈비언 전용 사이트가 아닌 보통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사이트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체화 과정에서 비교적 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어때?"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호모포비아는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모포비아를 직면하지 않고 싶어 하는 방어기제일 뿐일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기반한 삶을 별것 아닌 일로 만들어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등을 무화시키고 싶은 것이다.

커뮤니티 참여 경로 및 형태

10대 레즈비언의 경우 커뮤니티 참여 경로 중 대부분은 역시 인터넷이다. 이들은 청소년 이반 사이트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서로를 확인한다. 채팅 사이트의 카테고리 중 대부분의 공간은 이성애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특정한 카테고리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카테고리의 방은 당연히 '이반방'으로서 이해한다. '팬클럽'의 이름으로 분류된 곳, 혹은 (동성애자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기타'의 이름으로 분류된

곳 등에서 이들의 채팅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10대 레즈비언은 만나서 친해지기 시작한 후에는 카페 등 인터넷 상의 모임을 만들거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모임을 서로 소개하고 함께 가입하거나 한다. 이러한 모임 중에는 동성애자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도 많고, 코스프레 동호회나 팬픽 동호회 등의 이름을 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0대 레즈비언의 만남이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학교공간에서 10대 레즈비언은 무리를 짓는다. 이들은 특정한 외모와 취향 등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접근해 친해지기도 하고,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사람끼리 뭉치기도 한다. 후자와 같은 방법의 커뮤니티 형성은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많다. 즉 중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알아 놓고, 이 중 같은 고등학교가 된 사람들과는 학교 내에서 친한 친구로 지내며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다. 이것은 10대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의 개인 신상 정보 보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며, 사진 등을 통해 얼굴을 공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대 초반의 레즈비언이 커뮤니티에 처음 접하는 경로도 대부분 인터넷이다. 이들은 10대 청소년처럼 일반의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접하기도 하고, 레즈비언 전용 사이트에서 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경우, 20대 초반의 경우, 10대보다도 더 썸, 부치 이분법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이름을 내리는 데 신중하고자 하는 노력도 큰 편이었다.³⁾ 이들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들을 보았고, 이성애적 모델과는 다른 동성애에 대한 꿈을 꾸는 일이 가능했다. 한편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들이 겪는 동성애 혐오 범죄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 선택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도 했다. 즉 20대 초반의 레즈비언은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마냥 이상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식의 과도기적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한시적인 만남 등에 한계를 느

3) 물론 20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모두가 썸, 부치 문제나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연애 중심적 측면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즈비언 사이트 등을 통해 20대 초반의 레즈비언들은, 썸 부치 이분법이나 동성간 성폭력 등의 사안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레즈비언 스스로의 문화를 수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긴 20대 초반의 레즈비언들은 다른 형태의 동성애자 모임을 꾸리고자 한다. 지역모임이나 연령모임이 그 대표적 예이다. 사는 곳이나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제한을 두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 레즈비언의 경우 학내 모임에 특히 관심을 높이 보이기도 한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비교적 높은 집단도 20대 초반 레즈비언 집단이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레즈비언의 경우, 중소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활동은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경우에도 모임에 직접 가입하기보다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하는 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컸다. 즉 왈칵지랄한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한, 두 번 만남을 가지고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신뢰 깊은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그 나이의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게 전혀 성정체성 빼고는 전혀 사회적인 연관성과 동일성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모임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대부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차지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레즈비언들은 몇 년 생 이상의 가입 제한을 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든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중에 '25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이나 '30대 레즈비언 모임' 등이 눈에 띄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주된 화제를 통해 살펴 본, 세대별 관심사 차이

10대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이다. 이미 기존 레즈비언들이 만들어 놓은 레즈비언 바나 레즈비언 커뮤니티 형태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형태를 띠고 청소년 레즈비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10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는 매우 간절하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물들이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내몰리고 집에서는 있으니 만한 못한 딸내미, 동네 사람들에게 남부끄러운 존재로 취급당하며 성인 레즈비언들에게는 유행처럼 레즈비언 놀이나 하고 있는 거짓 레즈비언으로 비난받는 10대 청소년들이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절실하다. 그들은 굉장히 가시화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전퇴학을 당하는 등 학교와 사회에서 내몰리기도 한다. 그러나 10대 레즈비언들이 자신이 겪은 이러한 폭력을 털어놓을 곳은 부재한다.

다른 레즈비언 친구들을 만나고 그나마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이 기뻐야 한 밤중의 놀이터였던 이들은, 그 공간이 가장 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들은 늘 '나를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20대 레즈비언의 경우,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연애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이다. 그것은 20대 초반을 연애적령기로서 규정해온 사회의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 20대 초반의 경우, 레즈비언 바나 일반 술집, 카페에서 주로 만나며 레즈비언 연애의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눈다. 아예 커플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레즈비언 연애의 역할 모델이 거의 부재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10대 청소년이 주로 또래 친구들만의 자리를 만들고 성인 레즈비언과의 동일시를 내켜하지 않는 것에 비해, 20대 레즈비언들은 중년 레즈비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이들의 경험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20대 초반의 레즈비언에게 연애가 큰 화두인 만큼, 20대 초반에서 펍 부치 이분법 문제나 동성간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쟁도 다른 세대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커밍아웃과 아웃팅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특히 10대를 거치고 20대 초반에 와서 막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은 인정하고 난 후에는, 어떤 친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커밍아웃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이들은 또래 레즈비언 친구들을 만나 커밍아웃 경험담을 나누고 조언을 듣는다.

30대 전후의 레즈비언에게 주된 화제는 결혼 압력과 독립문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등이었다. 즉 30대는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안고 어떤 형식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대를 함께 보내온 레즈비언 친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애쓰거나 아예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삶의 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된다.

이 발표는 통계 등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가질 수 있는 힘이 매우 적다. 또 생각했던 것처럼 깊은 주제들을 다루지 못해 개인적으로 남는 아쉬움도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레즈비언리즘 담론이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져 왔다면, 이번 토론회는 그 주체를 당당히 '레즈비언 자신'으로 설정하여 이제 '레즈비언,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지는 의의가 클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나와 다른 분들의 발표는 그 자체가 레즈비언 역사의 기록이며, 레즈비언 삶의 증언이다.

레즈비언의 다름과 같음을 살펴보고 레즈비언 공동체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는 이 자리를 시작으로, 레즈비언들의 차이와 닮음의 증언들이 더 많이 들릴 수 있기를,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의 언어로 레즈비언 경험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1부 발표3)

철이의 눈을 통해 본 우리 시대 레즈비언의 모습

철이

<여성이반친목모임 조이토마토> 운영자

레즈비언도 호모포비아도 없던 시절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좋아했으나 당시에는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등등의 단어가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라고 생각해보진 못했다. 영화 <크라잉 게임>이 개봉되었고, 어디선가 무엇을 주워들었는지 같은 반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꺼냈던 장면이 어렵게 기억나긴 한다. 내게 “너, 재 좋아하지?”라며 뻔한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호모포비아가 섞인 질문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호모포비아라는 개념도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아이에게 커밍아웃을 하며 고백을 했었다. “나는 동성애자”라는 구절을 편지에 적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 때 동성애자임을 자각하고 인정했던 셈이다. 같은 반의 일반 친구 몇몇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나 변태 취급을 받거나 거부 당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뿐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네가 어떤 남자를 사귀지가 제일 궁금해.”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서야 내 커밍아웃이 그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 친구들이 악의를 가지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몰랐기에 문제집에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넘기듯이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뒤늦은 반응을 보니 말할 상대가 없어 하루 종일 입 한번 벅긋하지 않고 지냈던 자폐아 같은 고교시절이 부분적으로 설명되는 느낌이었다. 물론, 훌륭한 이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반 커플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고 말하기도 한다. 열라 부럽다.

처음으로 다른 동성애자들을 만나다

통신을 시작하면서는 4대 통신망의 퀴어 커뮤니티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통신 아이디는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마 가입하진 못했다. 나중에 내 돈으로 내 아이디를 만들고서야 통신의 퀴어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부모님 돈으로 만든 통신 아이디는 오빠와 내가 공유해야하지만, 내 돈으로 만든 아이디는 오빠와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 자기 돈이 있어야 이반 커뮤니티 활동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다, 돈이 있어야 한다!) 당시에는 갈 곳이 4대 통신망 외에는 없었기에 통신 모임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이반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통신시절엔 내가 무리를 많이 했던 것 같다. 낯선 사람들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노는 것은 내 성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그때는 그 공간의 그 사람들 외에는 만날 이반이 없어서 그들의 술자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새벽 2,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나날이 이어졌고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글썽글썽한 눈으로 바라보아도 대답할 말이 없어 곤란했었다. 통신시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학벌도 직업도 배경도 관심사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놀 수 있겠느냐, 술 마시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아는 이의 말로 대신한다.

통신 모임은 나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준 공간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나는 그 곳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만한 상대를 찾지 못해 항상 불안하게 붕 떠있는 상태였다. 지금 통신 시절을 떠올려보면 밤새 술 마신 기억 밖에 나지 않는다. 다른 이반을 만나 반가웠지만 만남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공감대를 찾아내지 못했기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학내 이반 커뮤니티의 안정감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다음카페를 기웃거렸다. 통신시대가 한풀 꺾이고 다음카페 천하가 열리던 시기였다. 통신에서는 퀴어 커뮤니티를 하나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는데, 다음카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10분만에 똑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매력이 수십, 수백가지의 카페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이반 카페가 생성되었고, 통신시절보다는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이반카페를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선택한 곳은 학내 이반 커뮤니티였다.

학내 이반 커뮤니티는 일상적인 삶과 이반으로서의 삶이 크게 나뉘지 않아서 좋았다. 내가 최초로 참석했던 통신 이반 번개에서 나는 같은 테이블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고 초면인 사람들끼리 키스를 하며 좌석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고 꽤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일반들과의 대화에서는 남자 친구 이야기, 결혼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며 일반인척 하는 등 이반 커뮤니티에서의 생활과 일반들과의 생활 사이에서 괴리감이 심해서 많이 버거웠다. 그런데 학내 이반 커뮤니티에서는 이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수업을 듣고, 공강 시간을 보내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었다. 친구가 동아리 공연을 한다면 회원들이 찾아가 공연을 축하해줄 수도 있었고, 이반 친구들과 함께 강의 계획표를 보며 수강 신청을 할 수도 있었다. 또한 퀴어 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퀴어 행사에 학교 이반 친구들이 단체로 참여할 수도 있었다.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학생으로서의 내 일상과 이반으로서 삶이 서로를 배반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인 일상을 꾸려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취직,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쓸 것인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후반은 2년, 3년 경력을 쌓아가는 중이라 해도 아직은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चे차기엔 약간 모자란 나이라고 생각한다.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과 국민연금 액수에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신용카드를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에서부터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되지 않은 여름 휴가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다가오는 추석에 부모님과 친척어른들에게 어떤 선물을 챙겨드릴 것인가... 학생시절에는 고민거리도 되지 않았던 새로운 고민들을 접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리고 학생시절 막연하게 '집을 나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던 '독립' 문제도 한층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학내 이반 커뮤니티 활동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중간고사, 리포트, 동아리 이야기를 주로 하는 재학생들과의 대화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나이 제한이 있지만 회원 수는 많지 않은 이반 카페를 찾아 가입을 했다.

올 여름에는 카페에서 20대 후반 커플 3쌍과 함께 카풀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차 안에서 국민 연금에 대한 지탄과 새로 나온 보험 상품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니들이랑 정말 친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내 또래는 학창시절 아르바이트 소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니 그런 대화가 귀중하게 들렸다.

지방에서 돌아와 나는 친구들을 불러 **<20대 1억 만들기>**나 **<20대부터 시작하는 내 집 마련>**같은 재테크 책을 돌려보았다. 부동산 시세 웹사이트를 둘러보고 이 정도의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를 몇 년간 저축해야하는가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반들은 '결혼도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덤벼들 수 있다는데, 반려자를 찾기 힘든 이반들은 '결혼도 재테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려보기도 한다. 아직 반려자라 할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에 '함께하는 재테크'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다.

결혼 전에는 절대 집 나갈 수 없다는 완고한 부모님을 둔 경우라도 이반으로서 그나마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집을 나와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기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중반부터는 독립자금과 자금운용 계획을 미숙하게나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집 나와 같이 살자"가 아니라 "집 나와 독립하자"로 독립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애인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했기에 부모님 손을 빌려서라도 집을 나오고 싶었다면, 지금은 내 삶의 전체그림을 위해서 내 손으로 집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 커뮤니티에서 만난 30대 후반의 회원은 20대 후반에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들더라며 부모님이 더 이상 연로해지기 전에 어서 독립하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한편, 아주 짧은 머리와 청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남자야, 여자야?”라는 웅성거림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도 학창시절 때까지였다. 2년, 3년 경력이 쌓이고 중년의 아저씨들과 격식있는 회의도 소화해야 할 나이가 다가오면 화장기 없는 보이쉬 스타일로 직장생활을 해나갈 자신이 없어진다. 복장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벤처에 입사한 덕분에 평소에도 캐주얼을 입고 다닐 수 있다고 해도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면 보이쉬한 스타일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 여성스런 옷차림이 생활화된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복장도 사회와 타협하고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돌려받지 못할 축의금에 속이 쓰리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학생 시절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 새로운 지출 항목으로 올라오곤 하는데, 축의금이 그 중 하나이다. 여태까지 쓰지 않던 곳에 마지못해 내는 비용이라 한번 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특히, 개인적인 친분이라기 보다는 회사 동료로서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일반 동료의 청첩장을 받으면 “돌려받지도 못할 축의금” 때문에 속이 쓰리다. 호모포비아를 평소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남자 동료의 결혼식 축의금은 진짜진짜진짜 내기 싫었으나 부서에서 1인당 몇 만원씩 내자고 말하면 안 낼 도리가 없다. 일반들은 지금 열심히 뿌려두고 나중에 자신의 결혼식에서 돌려받을 기대라도 하겠지만, 어느 이반이 나중에 자기 결혼식에 일반을 초대하여 그 동안 뿌려놓은 축의금 본전 찾을 생각을 하겠는가? 직장 생활을 좀 더 오래 한 분들은 “나중에 조의금은 내주겠거니, 생각하고 내야지.”라고 체념하라며 다독여줄 뿐이다. 이반 커플 집들이에 쓰는 선물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걸 보면, 돈 몇 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축하해주고 싶지 않은 일반 커플에게 헛돈 쓰는 것이 아까운 것 같다.

결혼 적령기, 바이가 싫어지는 이유

같은 이반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남자랑 선 뽕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는 날이면 이반으로 산다는 것이 이반으로 남겨진다는 뜻이 되는 듯

하여 착잡해진다. 20대 중후반이면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나이라 그런지, 주변에 결혼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리고 한때 좋아했던 사람의 결혼 소식을 뒤늦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이 바닥에서 만날 일이 없겠구나”였다.

드라마 <The L Word>에서 돈 많고 말 많고 피딱한 피바디 여사가 “나도 00년도에는 레즈비언이었지.”라고 회상하자 아름답고 지적이고 당당한 뱃이 “그런 경우에는 헤즈비언이라고 해요.”라고 지적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헤즈비언’은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나는 헤테로와 레즈비언의 합성어일 것이라고 짐작 중이다. (아, 옆에서 누군가 ‘과거완료 had’ + lesbian 일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정확히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길.) 우리나라 10대들 사이에서는 ‘탈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흔히 동성애자들은 바이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한다. 머리로는 바이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바이라면 약간 거부감이 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바이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사이를 필요할 때마다 오가는 박쥐 같은 존재라고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성소수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 공감대가 있다고 믿는다. 항상 이반, 동성애, 퀴어 등의 검색어를 빼놓지 않고 쳐야했던 갈증, 나우누리며 하이텔이며 천리안의 퀴어동 대문 앞에서 서성이던 막연한 마음, 이반에 대한 테러에 경악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대중문화 속의 퀴어 코드를 발견하고 공유할 때의 반가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쉬쉬하던 고민을 이야기할 때의 안도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성 커플을 볼 때의 든든함... 동등, 통신시절부터 지금까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수성과 공감대를 토대로 이뤄진 이반들의 교류와 유대감이었다. 바이라는 사실이 그런 유대감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바이가 특별히 싫을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학창시절에는 동성과 사랑을 나누다가도 적당한 나이가 되어 이성과 결혼하는 바이에 대한반감은 이성과의 결혼이 성소수자로서의 감수성을 상당부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 후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쟁기고

애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몇 년 지속되다 보면 이반으로서 겪는 일상적인 문제와 고민들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혹은 “지난 일”이 되리라…… 이렇게 되면 결혼한 바이나 동성애자들이나 서로 교류가 어려워지고 이반 커뮤니티의 활동을 토대로 생긴 유대감이 무너지는 것도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와 사귀다가 여자와 결혼하는 여성 바이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는 이유는 바이라 할지라도 성소수자로서의 감수성과 유대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회사 회식자리에서 이성교제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레즈비언들은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며, 일반인적 해야 하는 부담도 느껴야하지만 바이에게는 이성교제와 결혼 이야기가 자신과 아주 무관한 일이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말 그대로 수많은 대화 소재 중 하나일 뿐이다. 일반들과 생활에서 성소수자로서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레즈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성소수자로서 받는 억압에 대해 레즈보다 덜 민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난 남자친구 사귀 적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바이는 아웃팅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썬덕을 든든한 방패를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다. 나는 그런 최후의 방패도 없는 레즈비언들이 우리 사회가 가하는 억압에 바이보다는 좀 더 민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민감함의 차이가 인간적인 교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나는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너만 좋아”라고 “그녀만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반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될 여지가 없다. 그녀만 좋을 뿐이니 그녀와의 관계가 끝나면 이반으로서의 삶도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남자랑 사귀고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 신분도 취미도 공통된 관심사도 모두 다른데, 어떻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하더라. 바이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는 이렇게 바이로서 정체화도 못한 일반들이 바이인 척 하고 다녔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본다.

이반 커뮤니티에서 함께 나이 먹을 수 있길

질풍노도의 시기를 벗어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결혼적령기라는 그물에 잡혀 정리되고…… 이런저런 고비를 거치고 남은 이반들이 현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봤던 쿼터 다큐멘터리에서는 60대 혹은 할머니 레즈비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연령대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가 부러웠다. 저 나이까지 레즈비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저런 노년의 레즈비언이 존재하는 커뮤니티의 역사성이 부러웠다.

한국의 이반 커뮤니티에서도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을 좋겠다. 한국 이반 커뮤니티가 외국보다 늦게 시작하여 현재 노년의 레즈비언을 보기 힘든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앞으로 함께 나이 먹을 수 있는 이반들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존재하면 좋겠다.

2부 발표1)

19살 레즈비언 리가 꿈꾸는 세상

리

저는 올해 19살인 10대 레즈비언입니다. 한참 꿈 많고, 호기심 많고 놀고 싶을 때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고등학교 올라와 누군가를 좋아하며 제가 동성애자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10대 아이들 도 대부분 누군가를 좋아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낌으로써 이성 아닌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좋아함으로써 나 자신의 성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에게 온 사랑의 무게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남에게 알릴 수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죠. 길거리에 다정하게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가는 남녀 커플을 보면 왜 그렇게도 부럽든지, 그 심정은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전 저 자신이 너무나도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반들 중에서 나는 왜 이반인지, 그 소수자들에 내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왜이리 아프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견 운명인 거라고-그리고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앞으로의 앞날이 걱정되긴 했지만-걱정은 뒤로 한채 편안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한 거 같습니다. 난 풀릴 것 없다. 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음.. 아무래도 한참 젊은 나이! 연애 쪽으로, 아무래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고 관심 있어 하겠죠. 하지만 그중 많은 이야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애태우기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에서 더더욱 외면 받는 것 같습니다. 10대의 나이 때 누구나 한번쯤은 첫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사랑은 그리 아름답지 만은 않습니다. 때론 상처와 고통만을 남기죠. 그런 우리들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희 10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 그 말에 반박하렵니다.

저는 이제 4개월 정도 뒀면 20살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 너도 성인이니까'라며 인정해 주실 것입니까? 무조건 우리의 어린 나이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어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반 이라는 것 때문이겠죠? 친구들과 집에 이반이라는 것을 감춰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숨겨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짓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진실 된 나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아직은 아무런 힘없는 나이기에 그저 묵묵히 견뎌야 하는 현실. 이반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 내가 이반이라는 것이 알려 지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그 불이익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을 뚝뚝 묶어 놓는다는 것을 제 주위에는 이반인 것이 알려져 학교생활이 힘들고 집에 커밍아웃을 했다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속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 놓을 수 없는 현실에- 때론 우린 방황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인권운동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폐지된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동성애자들의 힘든 삶 모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반들이 저 같은 생각을 가지진 않은 듯하네요. 저는 답답합니다. 힘들다고,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외치는 이반들. 하지만 그중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일반들에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의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까운 내 미래에는 저 일들은 바로 나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그렇기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반인 나는, 현재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셨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셔도 좋고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 뒤면 20살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우선적으로 더더욱 인권운동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 언젠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이랑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직

업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도 하고.. 언젠가는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면 부모님께 소개 시켜 드리고 싶기도 하고. 먼 미래에는 내가 이랬구나, 저랬었구나...하며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루하루 마음 줄이며 사는 더 이상 힘든 삶이 아닌. 자유로운 삶을 나는 소망해요 이반들도 길거리에서 헌팅할 수 있는 세상을, 사람 많은 곳에서 이반들도 다정하게 껴안을 수 있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제 여자입니다"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내가 동성애자 라 분류되는 사회가 아닌.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제가 바라는 세상이고, 제가 꿈꾸는 저의 미래입니다.

2부 발표2)

20대, 우리에게겐 행복할 권리가 있다.

파스

첫사랑의 경험과 나의 어렸을 적 이야기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그 시절 내성적이었던 나는 친구들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반에서 주도적이지도 못했고 오히려 활발하고 적극적인 애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처음엔 이런 부러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다. 보기만 해도 떨리고 그 애가 말을 걸어오면 얼굴이 빨개져 얼굴조차 쳐다볼 수 없었던 그 때의 기억.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분명 나는 첫사랑의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인기 많은 순으로 남자 1위 누구, 2위 누구, 여자 1위 누구, 2위 누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화젯거리를 만들었다. 친구들이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난 이상하게 남자 순위에서 고르지 않고 여자 순위에서 고르고 있었다. 어렸을 때 이런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후 별 문제없이 여중에 입학했다. 입학을 하고 얼마 안 되어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후보였던 두 선배들은 컷머리에 아주 활기찬 사람들이었고 후배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었다. 그 선배들은 연애인 이상이었고, 그 선배 외에도 많은(소위 말하는 부치 스타일) 선배나 동기들은 아침에 학교에 와서 책상 위의 편지나 꽃 혹은 작은 선물을 꼭 받게 되고는 했다. 이런 경험을 대다수 아이들이 보고 직접 경험하며 중학교 시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누구도 그 감정이 L의 감정이라고 직접 규정짓지 않았고, 그 이상의 진지한 감정일 지라도 누구도 욕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될 거라고 지지하거나 그 두 사람을 은근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곤 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의 일들을 회상해보면,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 즉 우리가 단어를 통해 가지는 호모포비아가 아주 큰 것 같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레즈비언이나 게이란 말은 일상 속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정확히 구체화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즈비언과 게이라는 단어에

사회가 만든 호모포비아가 결합되면서 똑같은 감정을 예기하면서도 만일 한 사람이 “젠 그럼 레즈비언이야?”라고 묻는 순간-즉 단어가 나오는 순간-그 친구는 단순한 경험의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으로, ‘비정상적인 다른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 같다.

어쨌든 난 중학교 때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한 친구를 특별히 좋아했다. 그 친구와 나는 학교에서 인사만 건네는 정도였지만 학교를 마친 후에는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같이 붙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 친구는 나에 대한 감정이 위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린 한 달을 친하게 보내면 두 달은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일정한 주기로 1년 동안을 보내게 되었다. 그럼 나는 그 소강 기간 동안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고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날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단지 게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몇 번이나 자살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졸업하기 한 달 전 그 친구와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면서 그녀가 가진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나 역시도 내가 이 때까지 겪었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누군가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비슷하다고. 그 때 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좋아할 수 없는지!! 그 애가 그랬듯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잘못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날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도 없었다.

문제는 그 때 내가 그 친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의 호모포비아 때문에 더 벽장 속으로 가둬두려고 했었다. 중학교를 거치면서 난 아주 적극적이며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고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학교 안 테두리에서 사회 밖으로 관심을 넓혀 가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학교 내에서 아웃팅을 당한 한 애를 보면서, (그 애는 반에서만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고 지나가는 애들 마다 그 아이를 볼 때 이상한 소리를 냈다) 나 역시도 개처럼 당할 까봐 무서웠다. 아무 문제없이, 학교와 부모님이 원하는 걸 척척 해내면서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내가(?) 여자애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까지 나를 나로서 보지 않고 레즈로서 나를 보게 될까봐, 학교에서 소문뿐만이 아니라 무슨 변을 당할까봐, 부모님께 알려지까봐 이 모든 것이 두려웠다. 간단히 말해 여자애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문제아가 되니깐…….

난 학교를 총 12년을 다녔고 지금도 학교를 다닌다. 중학교 때 그렇게 힘든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날 부정했어도, 그 누구도 레즈비언이 무엇인지 호모포비아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주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혼자서 사전을 보고 뜻을 알아내거나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를 알아내는 것만으로 부족했고 온라인상의 접근조차 호모포비아에 심했던 나로서는 가입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 나와 같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런 고민을 하는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선배가 있었으면 내게 레즈비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줄 책이 있었더라면 난 그렇게 힘든 삶을 산진 않았을 것 같다.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기

그리고 난 어느새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고등학교처럼 폐쇄적이고 여자만 있는 곳이랑은 너무 다른 곳이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넓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여가 아닌 남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다니는 곳이었다. 다시 말해 엠티를 가도 동아리를 모임을 가져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는 여자애를 봐도 끝까지 모른 척 해야 하고 오히려 남자 애랑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면 재량 사권다는 등 관심 있냐는 등 오직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만이 통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서 부모님은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를 학교의 틀이 아닌 나의 틀로 계획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취업이나 결혼 등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압박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나는 더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가 원했던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소위 말하는 CC였다. 항상 붙어 다니고 주위의 다른 이들도 우리를 묶어서 생각할 즈음에 나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예전에 그 애들과는 달랐다. 분명 이 애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는데 떨림도 지극

함도 간절함도 여하튼 무언가 부족한 상태였고 결국 헤어졌다. 헤어지기 까지 난 많은 고민들을 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난 처음으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었다. 오프라인으로 그녀들을 만나 그녀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모습들을 보았고 난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보다 지방은 실제로 커뮤니티가 거의 없었고 난 레즈빠라든지 다른 레즈비언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나 말고 그렇게 많은 레즈비언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10년째 동거하는 커플과 100일 이라면 축하해달라는 이들 또 며칠 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다는 내 또래 애를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레즈비언의 삶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지 참 바보 같았다. 또한 학교 총여에서 주최하고 동성애를 담론으로 하는 문화제(강연회)를 참석하면서 레즈비언에 대해 내가 한참 무지했던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나를 처음으로 긍정하기 시작했다.

그 후 난 여자친구를 사겼고 남자친구와 있으면서 생겼던 고민들의 답을 쉽게 찾았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하루하루를 그녀와 같이 보내는 삶이 아주 행복했었다. 이제 세상이 나 보고 이상하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다. 난 단지 여자가 더 끌리니깐. 정체화 완성~!!! (세상아~ 욕해라 그래 욕!!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데? 흥~)

레즈비언으로서 살아남기

1. 사회에서 살아남기-20대 초반! 무시무시한 사회로의 진입 전초전
2. 커밍아웃 vs 아웃팅-항상 문제
3. 연애-20대 초반의 초미의 관심사!!

: 이성애자 사랑하지 말기 - 어떻게 T.T 이미 좋아진걸..

: 외로운 커플 - 커뮤니티! 다른 이반커플과 소통하기

: 가깝고도 먼 미래 - 다른 일상적인 가정처럼 저희도 가정을 꾸리고 싶답니다.

20대 초반이라는 연령 대는 사람에 따라 빠를 수도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여튼 사회진출을 코앞에 둔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 또 다시 벽장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장래의 직업에 있어서도 부모님과도 마찰 없이 평화롭게 살아남고 싶다는 욕구와 함께 사회의 억압과 폭력적인 시선을 눈으로 목격하

고 몸소 체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레즈비언의 삶이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핏빛 미래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방된 공간의 확장으로 아웃팅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언론이라든지 학교수업에서 떠드는 공포적인 호모포비아를 더욱 체감하며, 시집갈 나이가 되어 가는데 오직! 남자 잘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님들을 옆에 두고 안타까워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욕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억압 받는 사회에서 얼마만큼 내가 지지받는지 알게 된다.

그럼 여기서 만일 레즈비언으로서 평화롭게 살아남아서도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중한 사람(부모님이나 친구들)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전제와 함께 커밍아웃이라는 또 다른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된다. 여기서 항상 자신이 원치 않는, 아웃팅의 문제가 따라온다. 아웃팅을 한번 살펴보면,

구체적인 예로, 두 사람이 사귀는 과정에서 다른 한 사람이 그녀의 친구라든지 부모님께 자기가 어떤 사람과 사귀는지 커밍아웃을 해버리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아웃팅을 시켜 버린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그녀의 친구라든지 부모님이 2차 3차적인 아웃팅을 하는데 있다. 아웃팅은 한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중요한 문제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데 있어 크게 잘못된 일이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나 문자라든지, 레즈비언과 관련된 텍스트나 영상을 타인의 실수나 악의에 상관없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레즈비언 친구들이 직접 힘들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완벽한 해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레즈비언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짊어지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상대방이나 부모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 인 것 같다. 그리고 아웃팅이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어떠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아야할 것이다.

결국 10대때 첫사랑을 경험하며 20대에 레즈비언의 삶과 사회의 억압이라는 혼란속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만일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려는 계획과 20대의 푸르른 날을 같이 하고 싶은 그녀가 있기 때문에, 아님 그런 기쁜날을 위해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다름 아닌 연애인것 같다. 그리고 레즈비언에게서 연

에는 소수자로서 억압받고 있는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며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친구를 통해 소개팅을 하거나 어떤 장소에서 만난 그녀가 우연히 뽀이 꽃힌다던가, 그리고 그녀와의 교제를 위해서 친구끼리 밤낮으로 상담을 한다던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고르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닐까? 하지만 레즈비언으로서 연애는 일반인과 매우 같으면서도 다르다. 레즈비언도 일반인과 같이, 여자친구랑 거리를 걸으면서 애정표현도 하고 싶고, 조심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녀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도 놀고 싶고, 둘만의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당당해지고 싶다. 하지만 그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연애는 매우 조심스럽고 은밀하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아웃팅의 위험과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일반인이면 또 문제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짝사랑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내서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일반이더라도 호모포비아 없이 나를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남녀 간의 사랑도 상대방이 NO면 어쩔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은 결국 짝사랑으로 결말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레즈비언의 연애는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다. 커플인 경우에 주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든지, 서로 축하해주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런 비슷한 경험자가 조언을 해주는, 이런 소통들은 커플간의 지속적인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거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볼 수 있게 된다. 세상에 혼자가 아닌 나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힘을 수 있는 커뮤니티는 성적 소수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글을 마치며...

이번 글을 쓰면서, 솔직히 정말 고통스러웠다. 내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구나 하는 나의 존재감과 나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시켜 주면서 동시에 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숨기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정말 잘못되고 나쁜 것이며 욕들을 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억울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누군가 나보

고 '여자를 좋아해라'고 안했는데 그냥 난 여자가 좋은 것이다. 다른 이들과 같이 나의 첫사랑은 좋은 기억이면서도 아픈 기억이며 내가 살아오면서 오직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난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나도 행복해 지고 싶다. 니가 행복해 지고 싶듯이... 레즈비언을 증오하는 사람들 너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수백 번을 더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는 못하는 세상이 다시 미워지면서 이 글을 마친다.

2부 발표3)

당당하게 꾸러 나가는 30대 비혼 레즈비언의 삶

초록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인정하기 싫은 남다름...

내 경우 성적체성이 남다르다는 자각은 사춘기 시절 누군가에 대한 '동성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설레임, 그리움'의 감정에 당황하며 시작된 듯하다.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 없었던 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굳이 스스로를 그 '무엇'으로 규정하지 않으려 했다.

성적 소수자 안에서도 다양한 부류가 나뉘어지는데 아주 어렸을 적엔 동성애자 라하면 트랜스젠더라는 생각이 너무도 강했고 주변의 좋지않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적어도 난 세상에 정말 손을 짚을 정도의 사람만이 마치 무슨 치유받지 못하는 병을 앓는 병자인냥 생각되었던 듯하다. 그리고 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던 청소년 시절, 성적지향의 다양함이 나 남다른 것이 잘 못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할 수 없었다. 아니 '더 알고 싶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하지만 동성에 관한 끌림이 자의와는 다르게 수 차례 반복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가슴앓이의 시간이 시작된 듯하다.

그것과 함께 그러한 감정(동성을 향한 이끌림)이 되풀이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답답했다.

고백은 생각지도 못하고 고백을 하면 난 이세상과 정말 동떨어진 사람으로 평생을 낙인찍혀 살아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랑을 나눈 연애와 이별을 통해 스스로 성적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 이성을 통해 느낄 수 없는, 동성을 향한 떨림과 설레임.. 함께 생을 나누고픈 소망, 성적인 흥분, 그리움 등의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처음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접하고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수의 '나와 같은 사람들(생각보다 멀쩡한.. ^^)'의 존재하고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었으며,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겐 희망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레즈비언으로서 잘 살아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엔 '행복'한 삶

'행복'이라는 것이 참으로 추상적인 개념이겠으나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산다는 것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한 때 몸담았던 친목모임의 모토는 '가족같은 모임'이다.

그 안에서 서로서로 돕고 인정받고 사랑도 하고 함께하는 노후를 꿈꾸기도 하고 삶을 지탱해주는 울타리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이 많다.

대다수의 30대의 관심사는 일과 사랑인듯하다.

몇몇의 사람은 일만 안정된다면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사람마다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얻는가는 다르겠지만 주로 직업(일)에 관한 중요성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30대가 갖는 위치나 역할이 막연하게 위만 바라보던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꿈을 갖던 20대와는 조금 다르게 책임이 따르는

직책이나 직접 자신이 경영자가 되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삶에서 직업이 갖는 비중은 참으로 큰 듯 하다.

또 한편으로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도 큰 듯했다.

드물게는 친한 이반친구에게조차도 구체적인 직업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자리와 인맥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한편으로는 서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이들도 있다.

다음 비교적 큰 관심이 동성교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성적체성이 다른 이들과

는 대화할 수 없는 부분임으로 비슷한 경험과 처지에 놓인 사람들만의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지받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나름대로 미래를 노후를 안정되게 지내려는 소망들..

성정체성이 같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은 욕망, '다름'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들...

결국엔 타인의 인정속에 차별과 편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결코 갈아 질수는 없지만 죄나 병으로 치부받지않는 공간과 환경에 머물고 싶은 소망들이 있는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인권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체의 존재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한결같이 말한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드러내놓고 하는 운동'은 말고... 후원의 형식을 선호하는 듯하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이라는 것도 대수롭다면 대수로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별과 억압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아닌가? 부당한 불이익속에 악! 소리도 못내고 주저앉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우리들에 울타리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다.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갖는 특징.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각자 개인차안에서 나름대로 정체화를 한 사람들이었다. 이 또한 개인차가 있겠으나.. 결혼에 대한 압박은 지나간 듯..

하지만 사회적으로 처한 위치라든가 가족과 절연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친가족들과의 삶도 함께 꾸려가야 하는 것이기에 마찰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부모의 보호 밑에 있어야 할 나이는 지나가고 철저히 혼자 책임져야 하는 나

이이기도 하기에 독립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하고 직업이 안정이 되어 그나마 가족들이 덜 걱정하게 되니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내 삶을 내가 당차게 혼자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혼자 살아도 '잘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안정된 직업이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주택청약저축 들어놓은 친구들이 꽤 많더라...

보험이나 적금, 주식 등 금융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로또를 즐겨하는 사람도.. 노후를 위한 금전적인 대비도 무시 못하는 듯..

내 꿈은 한 우물 잘 파서 그곳에 물이 솟는다면.. 그것을 내가 아끼는 나와 같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하고있는 일에 경력이 더 쌓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픈 소망이있다.

성공한다면 레즈비언이 드글거리는 사업장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차근차근 노력하여 안정된 노후를 함께하고픈 소망이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아끼는 인권운동단체들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싶다.

2부 발표4) : 사례발표

40대 레즈비언, 그녀들의 삶과 사랑

레즈비언인권연구소

■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나 '레즈비언'은 '변태'와 같은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었으니까요. 현재의 이러한 변화는 분명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인식을 알리려고 했던 동성애자 인권운동, 온라인 공간을 통한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확산, 다양한 동성애자 활동들의 등장과도 연관을 맺고 있죠.

그렇다면 요즘의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그 당시, 그보다 더 이전의 한국사회에는 동성애자들은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글에서는 40대, 70-8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레즈비언들의 삶과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현재 우리 레즈비언의 삶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와 삶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의 변화를 끌어온 많은 에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40대 레즈비언, 그녀들의 이야기

40대 레즈비언들은 50-60년대에 태어나 70-80년대에 사춘기와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70년대의 한국사회는 레즈비언들에게 어떤 사회였을까요? 당시에 '레즈비언'이나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중,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할 만큼 의미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위에서 '레즈비언'을 본 경험이나 접할 수 있었던 기회는 극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레즈비언들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모임을 이루거나 커뮤니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각각의 레즈비언이 '고립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들은 처음 자신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모두 다른 경험을 말합니다. 주위에서 동성애자의 모델이나 지식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름을 어렵게 깨달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례 1)

"내가 처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야. 원래 생각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부터 누가 좋으면 항상 여자더라구. 처음에는 고민을 했지.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받아들였어. 두 번째도 여자였기 때문에. 나는 레즈비언이 나 혼자인줄 알았어. 주위에 상담할 사람도 없고 그랬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00박사라는 사람이 청소년 상담을 했었는데, 나도 거기다가 막 편지를 쓰고 그랬어. 그 때 그런 동성애 얘기가 나오면 '극복하세요, 노력하세요. 청소년기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 그때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제한적인 대답밖에 못한 것 같아.....'계기'라는 것이 따로 없어. '요이 땡, 이때부터다'라고 머리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40대 레즈비언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주위에서 레즈비언의 '모델'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을 '남들과 다른 여성'이라고 자각하게 된 계기 중 중요한 부분을 자신이 '남자 같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⁴⁾

사례 2)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시기를 잘 모르겠어. 나는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고 그랬는데, 꼭 여자애들 넷이서 놀았어. 둘이서 한 팀이고 부부놀이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난 항상 아빠야, 난 키도 크고 남자 같고 그러니까 항상 아빠를 시켰어. 그 애들이 중학교를 같이 올라갔는데 술 먹는 놀이를 했지, 진짜 술은 못 먹으니까 물 떠놓고 김치 하나 집어먹고. 근데 그 때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어. 내 상대인 여자애가 옷을 벗고 누워있고 나는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고, 잘은 몰라도 그

4) 이 인터뷰 결과는 인터뷰가 모두 '남자'같은 외모를 한 여성들에 한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연구자가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40대 레즈비언의 경우는 현재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20-30대의 오프라인 커뮤니티와는 단절된 상태에 놓여있거나 그나마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인터뷰 대상자를 발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성'적인 레즈비언의 경우는 (파트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만나기 어려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드러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적인 40대 레즈비언들의 사례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40대 레즈비언의 사례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러면 애가 나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그러다 고등학교 때 나는 남자는 관심이 없었고 예쁜 여자를 보면 좋고 그랬었던 것 같아. 다른 친구들(레즈비언)은 어렸을 때 뭐 여자랑 키스도 하고 그랬다는 데 나는 그런 것은 다른 세상에 기 같은 거였어. 난 그런 경험은 없었거든. 그냥 여자애들이 좋으니까 남자애들이 괴롭히면 보호해주고 그랬지."

사례 3)

"내가 어렸을때부터 여성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4-5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다 '세상에 남자도 저렇게 극성스럽지 않을거라고' 그렇게 말했대. 엄마가 하루에 내 옷을 세 번을 갈아입혔대. 하루에.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깔끔한 분이였는지 생전 날 빨개벗겨서 내보내지를 앓았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뽀스만 입고, 난닝구만 입고, 애들하고 노는 게.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하고 놀더라구. 뽀스만 입혀서.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는 빨개 벗고 노는 거야."

이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중 큰 이유가 외모에서 비롯된 갈등입니다. '남자'같은 외모와 성격을 가진 여성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례 4)

"특히 부치들이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지. 가깝게 지내던 후배가 있는데 은행에 입사해서 얼마 안 되서 그만뒀다고. 유니폼이 스커트인데 그게 입기 싫어서 그만둔 거라구. 특히 부치들이 이런 일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해. 일반 생활이라는 게 남성들이 중심적인 사회인거잖아. 그래서 끈질기게 승부를 걸려는 사람들, 아예 내재미나 찾자 이러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거지..... 우리 때만 해도 여자는 '직장의 꽃' 이런 분위기였어. 나 다니던 회사에서도 치마 유니폼을 입으라고 했는데 나는 거부를 했어. 그게 내 직급이 과장이었으니까 괜찮았던 거지..... 뽀들이 생활력이 강한 데는 이유가 있어. 일반생활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따라가려는 면이 있어. (내 애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화장품이 좋대. 나 같은 사람은 공짜로 줘도 싫은데 말이지. 부치들이 참 안쓰러워.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기 힘들테니까 말이야."

사례 5)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치마저고리를 입게 했어. 그런데 나는 바지저고

리를 입고 다녔어. 직장을 들어갔는데 치마 유니폼을 주면서 나보고 입으라는 거야. 나는 치마를 입으면 건지를 못하겠는데 말이야, 그래서 유니폼을 안 입는 방법을 생각했어. '저요, 걸어서 십 분거리 치마 입으면 삼십분 걸리는데, 괜찮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입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는 어딜 가든 치마 유니폼은 안 입었어."

위의 (사례 4)에서 나타나듯이 레즈비언의 외모에 따른 사회적 갈등상황은 '부치'와 '뽀'의 경우에 확연히 구별됩니다. '부치'는 '여성'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전면 거부합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직급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적응도'가 떨어진다는 면에서 사회로부터 내쳐지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부치'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위협하고 보수가 낮은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70년대 레즈비언 모임인 '여운회'(여자운전사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례 6)

"내가 70년대에 만났던 사람들은 주로 명동에서 모임을 가졌던 레즈비언들이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인텔리야. 학벌이 다 대졸이었어. 여운회 사람들은 운수업에서 일하다보니까 트랜스젠더 같이 남장한 사람들이 많았어. 만약 내가 그 선배들을 만났으면 나는 지금쯤 (성전환)수술을 했을 거야. 근데, 우리 선배들은 약간 중성이란 말이야. 은행에도 취직을 하고, 은행에서는 유니폼을 입을 거 아니야.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교통부에 있었던 선배도 계셨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머리를 짧게 파마를 했지만, 화장도 하고 바지도 입었지만 여성으로서의 살 길을 찾은 거지. 나는 남자 옷을 입고 다녔지만 남자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았어. 약간 중성이었어."

이렇게 그들이 '남성적'인 외모를 고수해온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자신의 다름을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례 7)

"직업을 고를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거나 전문직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구태여 눈높이를 낮게 해서 그렇게 밖에 못살았을까 싶어. 어떤 면

에서는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 내가 외면당할 수 있다는 생각 말아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스무 살 넘어서 (내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거지. (레즈비언) 선배들 만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어릴 때에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었어. 점점 갈수록 내가 레즈비언이란 게 분명해 지니까 정신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자재과 창고에 내가 일부러 들어갔었어. 일단 거기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안보이잖아.....거기 상사들도 내가 하도 남자 같으니까 '미스 김'이라고 안 부르고 '김 형, 김 형' 이렇게 불렀다니까."

70년대 레즈비언들은 현재 한국사회와 달리 레즈비언의 '역할모델'을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이성애자 여성'과 구별하기 위해 '남성'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을 더욱 편하게 만들기보다는 더욱 '소외된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힘든 삶을 선택한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시각으로 단순히 그들을 '트랜스젠더'나 '남성을 모방하는 여성'으로 말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사례 8)

"그 당시 여자의 업무라는 것은 '경리직' 정도였어요. 게다가 여자는 직장의 꽃이라고 불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명 '바지씨'에 속한 남장여인이었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은 더욱 한계가 있었지요. 제가 속한 '바지씨'는 요즘 언어로 '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반(동성애자)은 바지씨와 치마씨로 구분했는데, 사실 바지씨는 트랜스젠더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레즈비언 관계에서 그런 고정적인 역할이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때는 너무나 일반적인 이성에 커플모습이 익숙한 데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 항상 '남자'와 '여자'의 역할모델을 따라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트랜스젠더에 가까웠던 '바지씨'의 삶은 더욱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여성은 '조신한' 혹은 '가녀린' 여성상과 현모양처의 모습이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라리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게 더 편했어요. 그렇다 보니 정말 남자 같아 보이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니 호르몬 주사를 맞기도 했었어요. 저 또한 그때는 호르몬 주사도 맞았어요. 그렇게 남들과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히 집과도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생각과 외모 등 성정체성 때문에 무수한 방황을 겪으면서 결국 집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⁵⁾"

사례 9)

5) 윤김명우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직업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했지. 내가 한국의 레즈비언, 지금 따지자면 '부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옷차림에서도 '치마를 입어야 하나'하고 굉장히 고민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말이야. 내가 만약 지금 세대에 태어났다면 달랐을 것 같아. 누가 나한테 화장하고 치마입어야 한다고 그러면 몸매 관리도 잘 했을거야. 나는 내가 남자가 아니란 걸 알거든. 내가 남자도 아니면서 구태여 남장을 하면서 남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거든.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 사람(남 좋아했던 사람)도 말하는 게 내가 남자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자가 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어. 그 사람도 내가 남자여서 사랑한 건 아니거든."

사례 10)

"직장을 구하려니 주민등록번호 '2'라는 숫자를 단 남장여인으로써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식으로 면접을 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장을 가져본 건 모회사 자재과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군요. 전문직도 아니고 승진을 보장 받는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까마득했어요. 집안의 불화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선택했을 때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선배들이 많았어요.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았고, 아예 트랜스젠더의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변태' 혹은 '정신병자'로 불리면서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그 심정은 아마 당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 후회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성애자들의 삶에 견주어 보면 너무나 힘들게 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40대 레즈비언은 모두 다른 연애행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의 교제를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70-80년대에는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교제했던 사람을 모두 '일반(이성애자)'이라고 믿었으며, 자신이 우연히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 이외의 다른 레즈비언을 만난 적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교제를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례 11)

"처음 만난 사람이 이성애자였어. 그 친구는 날 친구 이상으로 생각 안 했어. 그래도 나는 사귀다고 믿었지. 밀고 뺏기고 관계가 10년 이상이 되었으니까.....내가 그 친구를 설득한 기간이 10년을 보낸거지. 난 연애감정으로 봤기 때문에. 상대가 맞장구를 쳐주니까 내가 헛갈리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내치지는 못하고 받

아들이지는 못하고, 그 쪽은 연애감정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그랬대. 친구로서는 널 잃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두 번째 연애를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을 잊었어.

우리 공동체가 지금 20대 애들처럼 카페가 있고 그러면 그 때 10년동안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것은 회소성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지. 애 아니면 안된다. 애 아니면 연애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억압하고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전부 해서 두 번 연애를 해봤는데 우리 때는 다들 그렇게 죽자살자 '이 사람하고만...' 연애를 했던 것 같아."

사례 12)

"내가 끈질기고 그런 인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지. 지금 애들처럼 카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애. 지금 이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은 너무 만족해. 동성교제에서 빈번한 스킨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성교제 안에서는 사람이 의식속의 제도나 이런 것이 묶여지는 보이지 않은 끈 노릇을 해 동성교제 안에서는 둘만의 결부된 사건이 없으면 그런 것이 힘들어. 이성교제 하는 애들은 본인들은 손 안잡고 어딜 가도 '야, 니네 사귀는구나'하면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잖아,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되서 나중에 인식이 따라가잖아. 우리의 동성교제는 우리 안에서는 통하지만, 우리는 생활은 일반생활안에 있잖아. 인생은 이반안에 있더라도, 생활은 일반생활이잖아. 스킨쉽에서 오는 무게없는 행동들이 감정을 흔들리지 않게 묶어두려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

이들의 삶은 90년대 초반 '송지나의 취재파일'을 계기로 언론을 통해 다른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변합니다. 자신 이외의 다른 동성애자들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이들은 커다란 감동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례 13)

"왜 그 때 송지나의 취재파일 그 때 있지. 어느 날 기자한테 전화가 온거야. 나는 근데 너무 좋은거야, 막 가슴이 떨리고. 이게 내가 세상에 나갈 기회구나. 하고 생각을 한거야, 나가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줘서 너무 고마운거지"

사례 14)

"96년도에 처음 끼리끼리를 가서 레즈비언을 만나게 되었지. 송지나의 취재파일 보고 레스보스가 막 나오더라, 전화번호가 나오다 말더라,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연락처 물어보고, 찾아갔지. 그 때 내가 동성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멀리더라고, 막 소굴에 들어가는 것 같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 같고 멀리더라고, 끼리에서 나온 책 읽은 다음에 분위기에 흠뻑 젖은 다음에 갔지, 그 다음에는 거의 일년동안 사람들 만나서 술먹고 놀았지. 매일매일 주말만 기다렸어."

■ 나오면서

현재 40대 레즈비언들의 삶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끼리 모여 파트너도 소개해주고,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등 친목을 다지는 공동체의 성격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과장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은 채, 이 모임을 통해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안정감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미래에 가난한 레즈비언 동료들을 위해 실버타운을 꿈꾸기도 하고, 실제로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들이 미래에 대해 꿈꾸는 것은 다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박한 바람과 힘들게 꾸려온 개인의 삶이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힘이 된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지식인의 이론보다도 값진 변화의 원천이 그 개개인 버티고 살아낸 삶에 녹아있는 것입니다.